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취임식 열려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이·취임식이 5월 26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 스님을 비롯하여 일산, 경주병원장, 일산한방병원장, 의과대학장, 한의과대학장 등의 산하기관장 및 내외 귀빈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신임 태석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형외과 교수)은 취임사에서 “학교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이진호 전 의료원장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의료원의 미래를 위해 모든 교직원과 구성원들이 합심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태석기 의료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과장을 거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대외협력실장과 DRC센터장, 수술실장 및 제3대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및 제14대 의료원장을 역임했다.



02 정목 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스님 환자를 위한 후원금 1억 원 전달

5월 25일 석가탄신일에 정목 스님(정각사 주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스님 환자를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전달했다.

정목 스님은 “수행과 포교활동 중에 신체적 질병과 통증이 있어도 병원의 고액 진단검사비와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스님들의 사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으며 오늘의 기부가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또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매년 정기적으로 스님 환자를 후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각사 ‘작은사랑’ 후원행사에서는 본원의 희귀난치질환 소아환자 5명의 쾌유를 발원하는 기도와 함께 각 가정에 300만 원의 후원금도 전달되었다.

정목 스님은 1997년 ‘작은사랑’을 만들어 현재까지 올해로 18년째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저소득환자 치료비 후원문의▶사회사업실 031-961-8360~1



03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동국대학교병원은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동국대학교 이사장이신 일면 큰스님을 모시고 5월 22일 5층 대강당에서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교직원, 환우와 보호자들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전행사로 아웃사이더, 연꽃누리 합창단 등의 음성공양과 육법공양으로 봉축법회를 시작했다.

1부에서는 의료원장의 축사와 일면 큰스님의 부처님 오신날 설법 등이 진행되었고 2부는 1층 로비로 장소를 옮겨 아기부처님의 관불의식 등이 진행되었다.

일면 큰스님은 “자유와 행복은 해탈을 통해 영원할 수 있으며, 자신의 허물을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어떤 위치에 있든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다.”고 설법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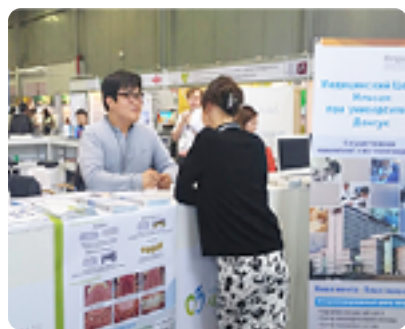


04 카자흐스탄 국제보건박람회 2015 참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국제진료사업 확대를 위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 ‘카자흐스탄 국제보건박람회(KIHE) 2015’에 참가했다.

15일에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로 아타켄트 호텔에서 열린 ‘Medical Korea & Beauty in Kazakhstan 2015’ 행사에 본원이 한국대표단 일원으로 참여하여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지 업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사 전시 및 비즈니스 미팅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양·한방 재활 협진, 한방미용, 각종 중증 질환에 대한 수술 및 치료가 현지인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본 행사는 카자흐스탄 보건사회발전부에서 주최하였으며, 22년째 열리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보건산업 박람회로서 지난 2014년에는 26개국 약 300개 기업 및 단체가 참석한 행사이다.



주인공 29호

시설관리팀

신동환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보험심사팀은 하역장이 옆에 있어 여름은 아주 덥고,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거기에도 냄새까지. 그래서 시설관리팀에 불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그때마다 군소리 한마디 없이 달려와서 온도 체크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해 주는 시설관리팀 신동환 대리를 소개합니다. 자기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냐며 넘기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자기 할 일을 잘하는 것이 병원의 진정한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마철이나 동한기에는 셔츠 팔을 걷어붙이고 병원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피는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애쓰는 직원들이 있기에 이런 큰 건물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하곤 했습니다.

신동환 대리는 저와 셔틀버스 동료이기도 한데요. 한때 출퇴근을 늘 같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캠핑을 좋아해서 가족과 한 캠핑 이야기도 들려주고, 좋은 여행지를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것을 보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주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항상 멋지게 사시는 ‘좋은 남자’ 신동환 대리님!! 올여름도 잘 부탁드릴게요.

보험심사팀 최해송

알 리 미

강인경갤러리 공예품 전시

기간 : 2015년 6월 1일(월) ~ 2015년 6월 13일(토) | 장소 : 1층 전시장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 합창단 음악회

일시 : 2015년 6월 4일(목) 12:00~13:00 | 장소 : 1층 로비